

5년간 100조 공급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첨단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자금 물길 흐른다

내일을 응원합니다



①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성장 모델 구축에 나섰다.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해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은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생산적금융과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공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③ 하나금융그룹



◆첨단산업·혁신기업에 자금 공급

구체적으로 하나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금융에 84조원, 포용금융에 16조원을 공급한다.

생산적금융 84조원 가운데 10조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그룹 자체적으로도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한다. 그룹 자체 투자자금은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은 K-방산 펀드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펀드 등 첨단산업 성장 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자금을 조성한다. 하나증권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하나벤처스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6조원 규모의 민간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대출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성장산업대출’과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관상품을 신설하고, 기술력을 갖춘 유망 성장기업에 총 50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도 확대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14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자금 공급과 함께 환리스크 관리, 외국환 컨설팅 등 종합금융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조직·KPI까지 손질

하나금융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실제 영업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직·제도도 개편했다.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에 각각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하나은행 기업여신 심사부에는 첨단전략산업 신규 심사 전담 조직을 새롭게 마련했다.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금융지원 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생산금융 84조, 포용금융 16조
첨단산업 성장·지역균형발전 지원
특관 상품 신설 등 대출 공급 확대
생산적금융지원팀 신설, KPI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완화
금융취약계층에 5년간 4조 공급

생산적금융 전용 상품도 확대한다.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특화 상품을 통해 첨단산업과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영업 현장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개편한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 신규 기업대출을 공급할 경우 실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생산적금융 관련 가점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금융전문역(RM)의 산업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구조 변화와 유망 산업을 주제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본부와 영업점 간 ‘원팀(One Team)’ 협업을 통해 기업 발굴부터 심사·자금 공급까지 연계한다. 이를 통해



②



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왼쪽)이 지난 23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청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②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금융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계열사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③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전경.

공급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비용 낮춘다

포용금융에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6조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12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투입한다.

우선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기반으로 매년 약 1조2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별도로 유동성 지원을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특관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하나금융은 매년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를 선별하고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청년·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는 5년간 약 4조원을 공급한다.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저축은행이 운영하는 자체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에서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취약계층별 맞춤 지원도 확대한다.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 자동상환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카드 발급과 생계형 중고화물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도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용 금융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포용금융 지원 범위도 한층 넓히고 있다. 하나금융은 ‘하나원큐안심중금리대출’과 새희망홀씨·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고,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기존 금융정보만으로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차주에게 금리 우대와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하나금융그룹